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땅심 회복 운동

김택열 / 경실련 환경농업, 실천가족연대

민족적 삶의 터전인 우리네 땅덩어리는 다른 생명체와 같이 항상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 산지(山地)는 숲이 우거져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풍부한 산림자원의 보고(寶庫)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농지(農地)는 비옥하고 오염되지 않은 흙이 퇴적되어 청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함께 물의 정화,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거처오면서 불행하게도 급격한 인구증가, 성장우선 국가정책, 일제식민지 수탈과 6·25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땅의 흙과 숲을 무분별하게 훼손·오염시켜 결국은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오염 국토·자연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부끄러운 반자연적 오염강토로 변화되어 버린 참담한 형국이 현실로 나타나 버린 것이다.

다행하게도 숲은 일천구백 육칠십년대 이

래 산림녹화정책과 목재연료 대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독실한 나무사랑정신에 힘을 입어 점차 늘푸른 옛모습을 되찾아 오면서 오늘날에는 산림이 식재(植栽)의 대상에서 육림(育林)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숲가꾸기라는 개념이 우리 생활의 일상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땅의 산지에 산림(山林)이 아닌 삼림(森林)이 우거져 울창한 산이 우리 생활주변에 가까이 다가와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능을 한껏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민족적 대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먹거리 생산의 기본 터전으로서, 그 무엇보다 청정하고 비옥하게 살아 있어야 할 흙은 어떠한가? 답론의 결과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농촌의 들녘을 찾아 땅의 흙을 유심히 살펴보자. 생기가 넘치고 보송보송한 옛흙이 아니고 딱딱하며 거름이 메마른 죽은 흙이다. 토양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우리 흙이 영양결핍은 물론 화학물질,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안전한 농작물

을 재배하기에는 기준미달 상태라고 단정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삶의 장으로서의 먹거리 생산터가 전문가에 의하여 사망 또는 오염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와 농업인, 관련단체의 총체적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실천, 객토사업, 흙살리기 운동 등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죽어 가는 흙을 살리는데 가능한 정책적 노력과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였으나, 그 효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친환경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양개량사업, 흙살리기 운동은 전국토의 방대한 흙을 개량 복원하는데는 역부족이며 실로 방법론적 미숙현상을 노출하고 있다. 어떻게하여 인산, 규소등의 화학적 토양개량제와 한정된 공급물량을 가진 황토 또는 축분 및 남은 음식물 등으로 제조된 유기질 퇴비가 광활한 면적의 오염된 흙을 되살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농촌현장에서 축분, 남은 음식물 등으로 제조된 유기질퇴비의 시비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드높아 가고 있음을 보면서 더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소극적이고 미봉적인 흙 살리기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본질적 해결이 가능한 흙살리기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하는 분기점에서 있다. 새로운 흙살리기 방법은 어디까지나 환경친화적이어야 함은 물론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지역단위 자

연자원을 주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에 합당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국토의 6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산지에서 산출된 간벌목, 잔가지, 산야초 등 이른바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산림자연퇴비(山林自然堆肥)를 지역 현장에서 대량 생산·시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인 숲가꾸기 현장에서 배출된 산림유기자원의 생산량이 연간 약 40만톤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마을별, 작목반별로 생산 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산림 자연 퇴비에 크게 기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산림유기자원에 일정량의 축분, 남은 음식물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산림배합퇴비(山林配合堆肥)를 이용하면 그 진가가 더욱 발현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국내에는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목재 관련 농기구가 안정되게 생산 공급되고 있어서 농촌현장에서 산림유기자원을 파쇄 이용하는 작업이 보다 손쉬워 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꺾이나 고무적인 일이다.

유구한 민족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주는 이 땅의 숲,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산림유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숲을 활용하여 양질의 산림퇴비(山林堆肥)를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친환경적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향한 청색 신호탄이며 금세기 우리 민

죽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다. 사계의 뜻 있는 인사와 직업, 연령, 계층을 초월한 전국민의 거국적 참여를 촉구한다. 땀감 목재 채취와 전투 목적으로 황폐화시킨 산지의 숲을 범국민적 결단으로 녹화시킨 바 있는 우리 민족

은, 결단코 양질의 풍부한 산림퇴비를 이용하여 이 땅의 흙을 되살려 약동하는 미생물의 소리가 땅속 깊이 울려 퍼지도록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는 밝아지고 우리의 흙과 밥상은 되살아 날 것이다.

실천강령

1. 우리는 산림퇴비를 활용하여 죽어가는 흙을 되살리고 환경친화적 농업 생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농업인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한다.
2. 우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당 및 관련사회단체 등에게 산림퇴비 대량 생산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3. 우리는 땅울림국민참여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악성농약퇴치·화학비료 절감·불량 유기질퇴비 척결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한다.
4. 우리는 산림퇴비의 효율적 생산 및 시비 효과증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의 시험연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5. 우리는 흙·물 살리기, 숲가꾸기, 퇴비증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건전한 사회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한다.